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만물〉도 〈사람〉도 다 귀하고, 가치 있다. 그 얼마나 귀하게, 가치 있게 보느냐에 따라 귀한 것도 아름다운 것도 신비한 것도 제대로 사용하게 되고, 행복도 더 누리고 산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귀하고 가치 있을지라도, 사람마다 그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믿느냐에 따라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산다.
2.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도 〈인생들〉도 얼마나 귀하고, 중하고, 가치 있게 창조하셨는지 배우고 깨닫고 살지 않으면, 보통으로만 보고 산다. 그러므로 감사함도 기쁨도 없이 살게 된다.
3. 만물의 존재물도 각 사람도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중한지 깨닫고 알아야, 귀하게 여기며 좋아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누리고 살게 된다.
4. 똑같은 만물을 보아도 어떤 자는 그 존재물의 가치를 알고 아주 귀하고 중하게 여기며 비싼 값을 주고 사서 닳도록, 빛이 나도록 쓴다. 그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 감격하며 쓴다.
5. 나무나 돌도 사람들이 같이 보고 살아도, 어떤 자는 귀하고 중하게 보고 갖은 수고를 하고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자기 것으로 삼아서 귀히 쓰며 기뻐하며 산다.

6.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고 살아도 귀하게 보고 사는 자도 있고, 별 가치를 모르고 보통으로만 대하며 사는 자도 있다. 이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가치와 중함을 모르기 때문이고, 예술성의 눈을 조금만 떴기 때문이다.
7. 사람들은 그 면에 눈이 어두워서 모르다가 알게 될 때, 그제야 귀하게 생각하고 찾으며 구한다. (집, 부동산, 돌, 나무 등)
8.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생각한 자들은 이미 오래 전에 좋은 땅, 좋은 집, 좋은 환경을 사서 차지하고 살아 왔다.
9. 첨단 예술에 눈을 뜨지 못한 자들은 수석이나 돌이나 나무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몰라서 수십억짜리를 बे고, 깨부수고, 헐값에 팔기도 하고, 다니면서 늘 보아도 보통으로만 보고 산다.
10. 사람도 ‘겉’만 보지 말고 ‘감춰져 있는 속’을 찾아보고 쓰면, 비싼 돌이나 나무나 환경 같은 자들이 많다.
11. 쓰는 것도, 가진 것도, 알아야 이를 주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감사하고 좋아하며 쓰고, 기뻐하며 살게 된다.
12. 사람이 만든 것은 값이 수십억씩 나가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은 그 값을 수십억, 수백억으로 매길 수 없다.
13. 무조건 감사하기보다 왜, 어떤 것을 해 주셨는지 깨닫고 감사하

고 영광을 돌리면, 더욱 근본적으로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된다.

14. 자기 차원으로 감사하여라.

15. 자기 개성대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라.

16. 감사와 영광은 그때, 받았을 때 돌리지 않으면 생각에서 잊게 되어 못 돌린다.

17. 쓸 때마다 주신 자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려라.

18. 노래도 늘 배우고 하지 않으면 잘 못 하듯이, 감사와 영광도 범사에 하지 않으면 발달되지 않아서 못 하게 된다.

19. 무엇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연구하고, 생각해 보아라.

20.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사랑하면서 성령과 같이 살려면, 늘 감사하며 사는 ‘감사 덩어리’가 돼야 한다.

21.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주신 자를 증거하며, 그와 같이 써야 된다.

22. 감사하며 영광 돌릴 것을 보물을 찾듯이 찾아내어 영원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께 감사와 영광을 드려라.

23. 하나님이 시대 사명을 하라고 보낸 주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극히 괴롭게 하여 심판하신다.
24. 영원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지 않은 개인이나 민족들은 지금도 병과 죽음으로 괴롭게 하여 심판하고 계신다.
25. 하나님과 주를 괴롭게 한 자들은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신다.
26. 감사하는 자에게 또 주신다.
27. 혀를 제 맘대로 놀리는 자들은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그 행위대로 대하며 갚아 주신다.
28. 지금도 선악의 행위가 자기를 대한다.
29.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주도 사람들도 마음이 상해서 또 주고 싶지 않은 것이다.
30. 마음과 행실로 좋아 기뻐하고 사랑하며, 주신 자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
31. 하나님과 성령님은 직접 주기도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주기도 하신다. 이를 깨닫고 근본자 삼위일체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라.